

악령 쫓는 강력한 힘 '붉은 띠' 허리에 장식하며 해맞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40km 떨어진 반롱란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옷감에 문양을 수놓는 여성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몽족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바느질과 자수를 배워 전설 등을 옷에 수놓는다.

/라오스 반롱란=김진수기자 jeans@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46>

6부 라오스 편

③ 몽족 전통 복식

라오스 반롱란 = 김경인 기자

'전통 복장에 수놓아 지키는 몽족의 문화.'
몽족은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태국 등에서 산악 지역에 중심으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묘(Miao),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흐몽(Hmong), 라오스나 미얀마에서는 몽(Mong)족이라 불린다.

몽족의 역사는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중국 황하 유역에서 살아오다 지난 세월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 산악지역을 터전으로 삶을 일구고 있다. 몽족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시기는 약 17~18세기께로 추정된다.

소수민족의 용광로로 불리는 라오스에는 공식적으로 70여개, 비공식적으로는 10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각자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몽족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7~9%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약 40km 떨어진 몽족 마을인 '반롱란(Ban Long Lan)'까지는 1시간30여분이 걸렸다. '반'은 우리의 '마을'이나 '촌'의 개념이다. 반롱란은 '절벽 밑'이라는 뜻을 지닌 '갓주야'라는 산에 둘러싸여 있었다. 해발 750m 높이에 있는 마을은 울창한 나무와 높이 솟은 기암괴석이 천혜의 요새라는 느낌을 줬다.

마을에 도착하자 해맑은 눈과 수줍은 미소를 가진 몽족 아이들이 먼저 반겼다. 아이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잠깐, 화사한 주름치마와 다양한 무늬로 수

놓아진 전통의상을 입은 몽족 여성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몽족은 또 크게 블랙 몽족, 화이트 몽족, 블루 또는 그린 몽족 등 세 개부족으로 나뉘는데 반롱란 주민들은 화이트 몽족이다. 세 개 부족은 복식의 색 때문에 블랙·화이트·블루 등으로 불리게 됐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전통의상으로 확인하게 구별된다.

블루 몽족 여성들은 주름이 많이 잡힌 낭색 치마에 정교하게 수놓은 파란색 띠를 허리에 두르고, 상의는 오렌지색 등 천을 넓게 덧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 반면 화이트 몽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긴 허리띠(허리 장식)를 두르고, 낭색이나 검은색 바지를 주로 입는다. 허리에서 앞뒤로 길게 뻗은 앞 가림 장식은 몽족 의상이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상의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단순하며 소매와 옷깃 부분에 보라색 등의 천을 덧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는 화려한 무늬의 주름치마가 인상적이다.

화이트 몽이라는 이름도 여성들이 입는 주름치마에서 유래 됐다. 화이트 몽 부모들은 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직접 만든 하얀색 계열의 치마를 선물한다. 맘은 결혼식 때 이 치마를 입는 것은 물론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이

장식을 새롭게 차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몽족이 송상하는 애니미즘과 관련이 있다. 붉은색이 악령을 퇴치하는 색이라고 믿기 때문에 붉은색을 지니고 있으면 나쁜 기분이 달아난다고 생각한다.

화이트 몽, 특히 여성들의 의상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대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바느질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때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전설 등을 문양으로 배워서 새긴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의 취향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문양들이 새겨지고 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옷에 다양한 무늬를 수놓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반롱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양은 달팽이 또는 나비 더듬이, 나비 날개 등으로 불리는 문양이다.

빠(15)는 "나비 날개 문양 여려 개를 붙여 놓으면 하트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다들 좋아 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우애와 화합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문양은 단풍나무에서 시작되는 몽족 이야기와도 연관돼 있다. 수천 년전 단풍나무에서 애벌레가 자라 나비가 되었다. 나비는 12개의 알을 낳았고, 이 알



◀붉은 허리장식이 인상적인 화이트 몽 남성 의상.



블랙·화이트·블루 3개 부족따라 옷 구별

나비 앞에서 깨어난 '묘족'의 전설 신봉

더듬이 문양 등 옷에 자수...마을 우애 상징



들을 전설 속의 불새에게 부탁하고 생을 마감한다. 불새는 1년에 한 개씩 나비가 낳은 알을 부화시켰다. 그런데 12년째 되던 해에 부화한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 묘족, 즉 몽족의 선조다. 몽족은 그래서 나비가 자신들 선조의 어머니라고 믿는다.

반롱란 꼬문양(55) 촌장은 "예전에는 직접 생산한 마를 이용해 옷감을 만들어 입었는데, 경작지가 줄고 문명이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옷감을 사서 입는다"며 "그래도 몽족이 우수한 손재주를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수놓아 입고 있다"고 밝혔다.

/kki@kwangju.co.kr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땀 한땀 직접 퀘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흠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립동 흠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30년 전통의 한정식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